

5. 자유-2. 왜 울고 있소?

주제: 왜 울고 있소?

시작 성가:

목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현실이 부활의 시각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안내:

우주는 화산-불의 폭발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다른 폭발(흔들림)에서 진화하고 새롭게 창조 되어나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의 흔들림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징조로 봅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 1,2).란 이 말씀에서 혼돈 위에 성령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는 마치 지진이 흔드는 것처럼, 막힌 돌이 굴러 길이 보이고, 텅 빈 무덤이 갑자기 환하게 느껴 오듯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마태 28,5)

사랑은 심오한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우리는 나뭇대로 채색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실은 오직 사랑의 눈을 통해서만 명료하게 보입니다. 사랑이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무덤으로 이끌었고,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본 ‘빈 무덤’은 어둠 속에서 더 깊은 뜻을 지닌 공허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 있는 믿음과 불신,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기쁨과 눈물은 모든 것이 접촉하고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마디 부르는 목소리 ‘마리아’라는 부름은 불신에 ‘싸이고 눈물에 젖은 여인을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분과의 엄청난 친밀함을 누릴 가능성을 마리아에게 열어주었다.(요한 15,15) 이제 마리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면적 지식과 사랑의 권능과 에너지로 싸이게 되었습니다.(루카 24,49) 에덴동산의 혼돈과 죄악은 부활의 은총과 기쁨은 이제 삶에서 다시 만나 새롭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재 정돈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하느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받아 하나로 모이며, 모든 아픔이 낮게 됩니다. 모든 방향과 목적이 명확하게 될 것이며, 모든 거짓 만족으로 이끌리는 것에서 자유로워 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정돈 되는 것을 보는 시간입니다.

나쁜 소식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지와 우둔함이 우리를 혼란과 환멸의 길로 빠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실망과 슬픔에 사여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초대했고, 그분과의 만남에서 시야가 다시 열렸고, 기쁜 소식-복음이 열렸다.

구할 은총 (갈망)

부활하신 예수의 기쁨과 아픔을 낮게 하는 그분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한다.

첫 과정: 바라봄-개인 성찰:

- 1.나/우리부부는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나에게 신앙의 눈을 열어 준 적이 있다면?
- 2.나/우리부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에서 더 깊은 사랑의 시각이 열린 체험을 이야기 하라면?
- 3.나/우리부부가 혼돈과 죄악과 은총과 기쁨의 만남 점이었던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다면?
- 4.조용히 앉아서 내 자신의 속을 무심히 바라본다. 주님의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에서 “오소서, 주님.” 하고 기도를 되풀이 하며 주님의 은총이 몸으로 퍼지도록 머문다.
- 5.나/우리부부가 어두운 느낌에서 주님을 초대 했을 때, 시야가 새롭게 열린 경험이 있다면?

둘째 과정: 들음-성경 말씀:

1.마태 28,1-8: 땅이 흔들리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기도 방법: 상상 속에서 동그라미 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데 모은다. 그리고 하느님의 창조의 배열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며, 그 한 가운데에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을 본다.

2.요한 20,1-10: 사랑의 눈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기도방법: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내 자신의 눈(시각)을 본다. 첫 번 보았을 때와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3.요한 20,11-18: 듣고 믿는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4.이사 30,18-26: 미래의 약속, 당면한 현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려고 일어서신다. 주님은 공정의 하느님이시다.

5.루카 24,13-35: 맹점

바로 그 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셋째 과정: 알아차림(공개 나눔):

개인 성찰과 성경묵상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것을 나누고 공개 나눔의 질문을 이용하여 부부의 응답을 확인한다.

(공개 나눔을 위한 질문):

1. 오늘 새롭게 발견된 나/우리 부부의 모습은?
2.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원하시는) 모습은?
3. 오늘 우리부부의 소명기도?

나눔과 듣기를 위한 기도